

아날로그-디지털 융합 ...자연의 심미 '꽃각시'

김해성 개인전 '드로잉과 디지털'

14일까지 동구 아크갤러리
작가의 감성 투사된 드로잉
디지털 채색 등 덧씌워 완성

아날로그적인 손 그림인줄 알았는데 디지털 작업이었다. 김해성 작가가 그린 '꽃각시' 그림말이다. 봄날 같은 화사한 세상을 펼친 김해성 작가의 개인전 '꽃각시-Drawing with Digital'이 5일부터 14일까지 광주 동구 아크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작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작업방식을 고수한다.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컬러를

덧씌웠다. 이후 컬러 이미지만을 디지털로 변환해, 먹으로 드로잉 한 종이 위에 디지털 출력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냈다.

작가 감성이 투사된 드로잉 위에 디지털 이미지를 덧씌워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라인드로잉 위에 디지털 컬러 이미지를 덧씌우기도 하고 우리의 전통 재료인 먹을 통한 자연스러운 번짐 작업 위에 디지털 채색을 가하기도 한다. 먹의 자연스러운 번짐은 아직 디지털이 월등한 수준으로 구현해 내진 못하는 듯하다.

김 작가에게 디지털은 새로운 세계다. 디지털을 통해 일차적인 평면 작업은 물론이거니와 공간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간다. 때로는 디지털 기술이 아날로그 작업의 숨은 조력자로서 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작가는 그 양면의 장점을 살리고, 아



김해성 작 예쁜친구들. 아크갤러리 제공

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체에 탐구하며 탐미했다. 이번 전시의 작업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체들이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은 김 작가만의 유니크한 '꽃각시'라는 캐릭터다. 인류의 형상을 띤 숲의 정령과 먹의 번짐이 특징인 꽃 화분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꽃'을 주요 오브제로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 과정에서 디지털의 방식을 활용하면 서도 결국 '자연과의 조화'를 말한다.

인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진보된 과학 문명을 이뤘지만, 이를 견제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상상해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 이번 전시에서는 이렇게 화사한 봄날을 반기듯 구현한 갖가지 꽃들의 그림 70여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

은 예술 작품의 기술적인 측면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술적인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의도가 중요하다"며 "작품이 기술적인 혼합을 통해 새로운 시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지 고민한다. 미술에서 기술문명의 수동적 작가가 보다 능동적 작가로, 이를 관리하고 조율·작동하는 위치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성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다수의 개인전을 비롯해 켈른아트 페어, 아트베이징, 한중미술교류전 등에 참여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서울 교향악축제, ACC서 실시간 중계

5~27일 금·토 8회 극장3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대향연을 광주에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5~27일까지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2024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 (이하 교향악축제)를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ACC는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 예술의전당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해 4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축제' 일부 무대를 금·토요일 총 8회에 걸쳐 실시간 영상으로 내보낸다.

올해 36번째 막을 올리는 '교향악축제' 공연 주제인 '더 웨이브(The Wave)'는 클래식 물결들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적 파동을 이룬다는 의미다.

교향악축제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대전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심포니 송 △광주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예매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7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다큐 상영

전남도립미술관서 다섯 편

세계 주요 미술관 5곳의 실상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상영된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주말 2층 대강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필름엔비디오 순회상영 프로그램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진행한다. 3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전시, 소장품 관리, 보존복원, 해설 등 미술관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미술관의 실상을 다룬 영상 다섯 편을 상영한다.

첫 번째 영화는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는 '내셔널 갤러리(2014)'다. 미국의 영화감독 프레더릭 와이즈먼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에서 12주가량 채류하며 촬영한 작품이다.

작품을 복원하고 전시를 해설하는 미술관의 다양한 일상을 세세하게 보여준다.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등 내셔널 갤러리에서 개최한 세계적 거장의 전시도



WHAT WE TALK ABOUT ABOUT MUSEUM

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심층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세 번째는 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을 다룬 '라익스 미술관의 새 단장-더 필름(2014)'이다.

우커 호헌데이크 감독의 대표작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 증축과정을 10년간 추적한 작품이다. 영화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미술관 철거와 복원, 소장품 구입, 예산 배정 협상 등의 뒷이야기를 선보인다.

네 번째는 '화이트 볼스 온 월스(2021)'는 사라 보스(Sarah Vos) 감독이 암스테르담의 스테델리크미술관에서 시행한 '포용성과 다양성' 정책을 다룬 작품

이다. 라인 볼프(Rein Wolfs) 관장과 직원들이 새로운 미술사적 관점을 제시하고, 채용에 다양성을 도입하며, 유색 인종 작가의 작품 구입을 증진하는 1년 반의 과정을 기록했다.

영화의 제목은 1995년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게릴라 걸즈가 스테델리크미술관 앞에서 백인 남성 위주의 미술사와 전시를 비판하며 외친 'White Balls on Walls'라는 구호에서 빌려왔다.

마지막 영화는 전시 감상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다룬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씨, 예술을 보러 가다(2022)'이다. 일본의 가와우치 아리오 감독이 시각장애인 미술애호가 시라토리 겐지의 전시 감상을 동행하며 촬영한 작품이다.

시라토리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감상법을 개발하여 20여 년째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이어오고 있다.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미술관 현장 발권 및 네이버 예약 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광주청년 음악가들 모였다 '아르플래닛' 창단 기념 연주회

28일 ACC 예술극장 극장2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예술단체 '아르플래닛(사진)'이 오는 28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관에서 창단 기념 연주회를 개최한다.

아르플래닛은 아티스트와 플래닛을 합쳐 만든 팀 이름으로 단 하나 뿐인 예술단체, 유일하게 빛나는 청년 음악그룹이라는 의미다.

두터운 경험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청년 음악가들이 모여 결성한 만큼 열정, 재능이 어우러진 공연 선사가 포인트다.

아르플래닛 멤버는 개개인 고유 역할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

다. 최혜지 대표가 아르플래닛 공연 총괄 디렉터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피아니스트 김민호·김세연·양다원·유예름·정재은·백계준, 바이올리니스트 김예본, 플루티스트 문윤정 등이 멤버로 참여해 차별화된 기량을 발휘한다.

최혜지 아르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광주에서 개최된 신진 예술가들의 축제 '리멤버 아티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지역 청년 음악가들의 열정과 재능을 필두로 관객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 감동을 전하고 있다"며 "지역 신진 예술인들을 알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광주시 문화 예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이영애 국악예술단, 광주천변서 '동기당 가얏고' 버스킹

내일 오후 6시반 동천동 산책로
이명식 교수·고재곤 명창 등 초대



이영애 단장

(사)이영애 국악예술단이 가야금병창을 비롯한 판소리, 단가, 국악가요, 경기민요 등 국악 '동기당 가얏고 버스킹 재능기부 공연'을 5일 오후 6시 30분 서구 동천동 광주



(사)이영애 국악예술단이 5일 광주 서구 동천동 광주천변 산책로 야외무대에서 '동기당 가얏고 버스킹 재능기부 공연'을 연다. (사)이영애 국악예술단 제공

전변 산책로 야외무대에서 펼친다. 빛고을국악전수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재능기부 버스킹 공연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인 이영애 명창과 국악전수관의 가야금병창 수강생들이 사랑가, 사철가, 도라지, 국악가요, 경기민요 등 우리 귀에 익숙하고 흥겨운 우리 가락을 노래한다.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고법을 지도하고 있는 이명식 교수, 경기민요 이수자 고

재곤 명창과 하서울(송원초 4년)양도 특별 출연해 10대 부터 3세대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부대 행사로는 가야금 배우기 체험행사를 마련해 우리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시민들이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한편 이영애 명창은 (사)낙안읍성 가야금병창보존회 이사장과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지도교수로 송원초등학교 꿈나무들

을 비롯해, 광주예술중학교, 빛고을국악전수관, 전통문화관, 낙안읍성 등에서 우리 전통 국악인 가야금병창을 가르치고 있다.

또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가야금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주말 상설공연과 매년 '낙안읍성 전국가야금병창 경연대회'를 열고 있는데 오는 5월 25일에는 2일간 제16회 대회가 열린다. 도선인 기자

